

인도네시아 인프라협력센터 주요 프로젝트 동향 보고 (10월 3주~10월 4주)

□ 정책 및 시장 동향

1. 프로젝트 정보

○ [도시개발-수방산단 관련] 파팀반항 연계 유료도로 건설 추진중¹⁾ (Bisnis, 10/9)

- 서부자바州 주지사 Dedi Mulyadi는 Subang郡 소재 파팀반항 (Patimban Port)으로 연결되는 유료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지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Karawang郡 인근 산업단지의 자동차 수출을 원활히 하고 물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힘
- Dedi 주지사는 원활한 수출이 산업계 및 세수 증대뿐 아니라 지역 소규모 공동체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은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와 직결된다고 강조
- 공공사업부(PU)는 파팀반국제항과 자바 횡단 유료도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37.05km의 파팀반 유료도로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해당 도로는 향후 Cikopo-Paliaman 유료도로와 직접 연결될 예정이며, 파팀반항과 Cikarang-Cibitung-Karawang 산업지대를 연결하는 교통망 강화를 목표로 함. 현재 공정률은 1·4공구 기준 평균 46.93%로 집계됨

○ [인프라-철도] 북자카르타 LRT 건설, 허가절차 완료 및 기술준비 진입²⁾ (Kompas, 10/10)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는 북자카르타에서 운행될 LRT 건설사업이 허가절차를 완료하고 기술준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힘. 해당 노선은 Velodrome, Kelapa Gading, Tanjung Priok, Jakarta International Stadium(JIS), Ancol에서 PIK 2까지 주요 거점을

연결하도록 계획됨

- Pramono 주지사는 북자카르타 지역의 교통 혼잡이 중부 및 남부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또한 완공 시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자가용 이용이 감소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 이어 접근성이 낮아 시민 불만이 많았던 JIS로의 이동 편의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임
- 본 사업은 자카르타 대중교통 통합 전략의 일환으로, LRT · MRT · Transjakarta · 통근열차 등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여 환승 편의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건설이 추진될 예정임

○ [인프라-철도] 자카르타 LRT 1B구간 공정률 74.37%³⁾(Bisnis, 10/12)

- PT Waskita Karya는 사장 Muhammad Hanugroho는 자카르타 LRT 1B구간(Velodrome-Manggarai) 건설 공정률이 74.37%에 도달했다고 밝힘
- Hanugroho 사장은 해당 사업이 현재 상부구조 · 선로 공사 단계에 있으며 자카르타 내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교통혼잡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 또한 Commuter Line Station과 Manggarai Airport Train Station을 연결하여 교통수단 연계성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본 사업은 자카르타 주정부 산하 공기업 Propertindo가 발주했으며 약 247백만불(4.1tril IDR) 규모로 '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임

○ [인프라-철도] 교통부-서부자바, 대반둥 LRT 노선 개발 계획 논의⁴⁾ (Cnbc, 10/12)

- 교통부 장관 Dudy Purwaghandi는 서부자바 주지사 Dedi Mulyadi와

1)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09/45/1918925/dedi-mulyadi-minta-percepat-penyelesaian-proyek-lrt-akses-patimban>

2) <https://regapolitan.kompas.com/read/2025/10/10/17046691/trase-baru-lrt-jakarta-segera-di-bangun-irini-nutanya>

3)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12/98/1919516/progress-konstruksi-lrt-fase-1b-velodrome-manggarai-capai-7437>

4)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1012121850-4-675080/rencana-proyek-lrt-bandung-rawa-muncul-lagi-irini-nutanya>

회담을 진행. 양측은 동서 노선에 대한 대반동 LRT 개발 계획을 논의. Dudy 장관은 서부자바 지역의 대중교통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힘

- 서부자바 경제개발보좌관 Sumasna는 대반동 LRT 사업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중이라고 밝힘. 계획된 LRT 노선은 서동 방향의 Leuwipanjang-Tegalluar 노선과 남북 방향의 Babakan Siliwangi-Leuwipanjang 노선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남북 노선은 교통체증이 심하여 Ledeng에서 Leuwipanjang까지 연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인프라-철도]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부채 재조정팀 구성 및 중국 재참여 추진⁵⁾(Bisnis, 10/16)

- 국가경제위원회(DEN) 의장 Luhut Binsar Pandjaitan은 다수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프라보워 대통령 정부가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개발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Luhut 의장은 중국 측이 자카르타-수라바야 고속철 개발에 조건부로 재참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 중국 정부는 인니 정부가 부채 재조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경우 수라바야 구간까지 사업을 이어갈 의사가 있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PT KCIC와 함께 부채 재조정팀을 구성중임. Luhut 의장은 해당 팀 구성을 위해 Danantara CEO Rosan Roeslani에게 몇몇 인사를 추천했으며, 현재 대통령령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

○ [플랜트-발전] Danantara, 자카르타 WTE 발전소 개발 착수 예정⁶⁾(Detiknews, 10/9)

- 국부펀드 Danantara CEO Rosan Roeslani는 정부가 Danantara에 쓰레기 에너지화(WTE) 발전소 개발을 공식 위임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와 협력하여 '25년 11월에 WTE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힘

- Rosan CEO는 해당 프로젝트가 단순히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것을 넘어 주민의 건강과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임

- 자카르타 주지사 Pramono Anung은 자카르타에서 하루 약 8,000톤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Bantargebang 통합폐기물처리장에는 약 5,200만 톤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폐기물이 국가 발전을 위해 조속히 활용되길 바란다고 설명

○ [플랜트-발전] WTE 프로젝트 우선 사업지 선정 예정⁷⁾(Cnbc, 10/14)

- 프라보워 대통령이 쓰레기 에너지화(WTE)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국무장관 Prasetyo Hadi는 투자부 장관 Rosan Roeslani가 참석하여 WTE 프로젝트 개발 현황을 보고했다고 설명
- Hadi 장관은 본 사업을 '25년 11월 초에 착수할 계획이며, 하루 총 폐기물 처리량은 최대 1,000톤이라고 설명. 또한 총 34개 군·시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10개 부지를 우선 사업지로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우선 사업지로는 Tangerang, Jakarta, Bandung, Yogyakarta, Semarang, Surabaya, Bali, Makassar 등이 해당됨

○ [플랜트-산업] Antam-Huayou 배터리 메가프로젝트 협력 조기 완료 촉구⁸⁾(Bisnis, 10/21)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Yuliot Tanjung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전략적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현재 PT Antam과 Zhejiang Huayou Cobalt간 협력 협약이 최종단계에 있는 Titan 프로젝트의 조기완료를 촉구하고 곧 착공식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언급
- Yuliot 차관은 Titan 프로젝트는 니켈 정제, 양극재 생산, 배터리셀 제조 및 전기차 조립에 이르는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 배터리 산업 대규모 투자 시리즈의 일환이며, 전기차 배터리

5)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16/98/1920963/luhut-ungkap-rasib-kereta-cepat-jakarta-surabaya-di-tengah-polemik-utang-china>

6) <https://news.detik.com/berita/d-8152797/danantara-gandeng-pemprov-jakarta-untuk-olah-sampah-jadi-listrik>

7) <https://www.cnbcindonesia.com/market/20251014180430-17-675781/waste-to-energy-danantara-jalan-prabowo-mau-buat-di-bantar-gebang>

8)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21/44/1920208/antam-dan-huayou-diminta-percepat-finalisasi-kerja-sama-mega-proyek-baterai>

주요 원료인 니켈을 포함한 전략적 광물의 다운스트림 프로젝트들이 정부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

-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전 내각 회의에서 이미 착공한 CATL(Contemporary Ampere Technology)의 Dragon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언급하며, Titan 프로젝트 또한 이에 이어 추진될 것을 지시

2. 주요 기업·기관 동향

○ [해외기업] ⁹⁾ENI·¹⁰⁾Petronas, 인니 가스 개발 위해 ‘26년 합작법인 설립 예정⁹⁾(Bisnis, 10/13)

- 이탈리아 석유기업 ENI는 말레이시아 석유공사 Petronas와 ‘26년 인니와 말레이시아에서 가스 자산을 통합 개발하기 위한 합작법인 (JV)를 설립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체결된 기본협약의 후속 조치임. 신설 법인은 재무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며, 양사가 각각 50%씩 출자
- ENI 천연자원부문 COO Guido Brusco는 해당 사업의 초기 생산량이 하루 30만 배럴로 시작해 점차 50만 배럴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규제승인 절차를 거치는 데 1~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
- ENI CEO Claudio Descalzi는 이번 합작이 노르웨이와 앙골라에서 각각 설립된 Var Energy와 Azule과 같은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며, 자산·기술·재무 역량 측면에서의 시너지를 창출해 양국의 잠재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해외기관] 인니-호주 대학, 에너지전환·담수화기술 공동연구 추진¹⁰⁾(Rri, 10/14)

- 주호주 인도네시아 대사 Siswo Pramono는 양국 대학이 에너지전환, 깨끗한 물 공급, 보건의료, 산업다운스트리밍 등 주요 분야에서 교육·공동연구·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협력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 Siswo Pramono 대사는 시범사업으로 Semarang의 Universitas Diponegoro와 Canberra의 Australia National University가 해수를 식수로 전환하는 담수화기술을 공동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해당 사업이 인도네시아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현장경험을 제공해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 [해외정부] 국가연구혁신청, 주튀르키예 인니 대사와 원자력·보건 분야 협력 논의¹¹⁾(Rri, 10/15)

- 국가연구혁신청(BRIN) 청장 Laksana Tri Handoko는 주튀르키예 인니 대사 Achmad Rizal Purnama와 원자력에너지·보건연구 분야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힘
- Purnama 대사는 튀르키예가 러시아와 협력한 Akkuyu 프로젝트와 현재 진행중인 Sinop 프로젝트 등 원자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 투자·기술협력 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설명
- Handoko 청장은 튀르키예와 공동개발 방식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기술이전만이 아니라 생산적 협력관계 구축이 원칙이라고 강조

3. 정부 정책동향

○ AHY 장관, 646백만불 인프라 투자 필요성 및 공공·민간 협력형 금융 생태계 구축 강조¹²⁾(Bisnis, 10/10)

- 인프라·지역개발조정부 장관 Agus Harimurti Yudhoyono(AHY)는 인니가 8%의 경제성장 달성을 위해 약 646백만불(10.747tril IDR)에 달하는 인프라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힘. 해당 수치는 국가개발계획청(Bappenas)에서 추정하였다고 덧붙임
- AHY 장관은 민간부문 투자 수요가 이전 대비 약 4배 증가했으며,

9)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13/44/1919906/eni-petronas-bentuk-jv-untuk-proyek-gas-di-ri-dan-malaysia-tahun-depan>

10) <https://ri.co.id/en/international/1901363/ri-aussie-strengthen-research-collaboration-on-energy-clean-water>

11) <https://ri.co.id/en/international/1903019/indonesia-turkiye-explore-strategic-partnership-in-nuclear-energy-health-research>

12) <https://ekonomi.bisnis.com/read/20251010/45/1919245/merko-ahy-ri-butuh-investasi-infrastruktur-us60-miliar-untuk-kejar-pertumbuhan-8>

인프라 개발 자금 조달이 국가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또한 정부가 공공과 민간 재원을 결합하고, 기부기금(endowment fund)을 활용하며, 다자 파트너 참여와 혼합금융(blended financing) 촉진을 포함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

- AHY 장관은 자본 소유자들의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투자가 유입될 것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규제 확실히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강조

○ 공공사업부, ‘26년 식량·물·에너지 자급자족 지원 인프라 PPP 사업 우선 추진¹³⁾(Bisins, 10/10)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프라보워 대통령 지시에 따라 ‘26년 인프라 개발이 식량·물·에너지 자급자족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힘
- Dody 장관은 식량 안보를 위한 관개 사업, 학교 시설 재정비, 교통 연결성 강화를 위한 도로 건설, 식량·에너지·물 안보를 위한 구역 개발이 포함되며, ‘26년까지 12,000개의 관개 시설, 600개의 사회경제 프로젝트, 700개의 식수 프로젝트, 80개의 폐기물관리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설명
- 또한 공적재정만으로는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기에 PPP 방식을 우선 추진해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친환경적·실질적·형평성 있는 성과를 이루겠다고 설명. PPP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에는 Lampung州, West Java州, Balikpapan市에서의 여러 댐 건설, 유료도로 건설 및 시범 프로젝트 관리가 포함된다고 덧붙임

○ 프라보워 정부 1년차 인프라 정책, 기반 정비 및 평가 중심 추진¹⁴⁾(Bisins, 10/17)

- 공공사업부(PU) 장관 Dody Hanggodo는 프라보워 대통령과 Gibran 부통령 취임 1년을 앞둔 현재, 국가 인프라 개발이 더딘

상황이며 인프라 개발이 프라보워 대통령의 Asta Cita 프로그램 기반 강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설명

- 또한 현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추진된 인프라 사업 평가 작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완공되었으나 아직 관개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지역사회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댐 건설사업이 주요 평가 대상이라고 설명
- 내년도에는 프라보워 정부의 식량 및 에너지 자립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고 덧붙임

○ 에너지광물자원부 차관, 아세안전력망통합사업에서 인니의 에너지허브 잠재력 강조¹⁵⁾(Rri, 10/17)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차관 Yuliot Tanjung은 아세안전력망통합사업(APG, ASEAN Power Grid)과 관련해 인니가 향후 아세안의 에너지허브로서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
- 차관은 인니 내 에너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아세안 지역으로의 전력수출을 위한 녹색에너지개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 이를 위해 전력공급계획(RUPTL)을 수립해 국가에너지인프라의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총 약 48,000 circuit km 규모의 전력망구축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또한 정부는 국가 및 아세안 전력통합을 위한 투자규모를 약 362억불(600tril IDR)로 추산했으며 재원은 공공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부문참여를 포함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4. 녹색산업 동향

○ ‘26년 B50 바이오디젤 도입 추진, 경유 수입 감소 목표¹⁶⁾(Reuters, 10/8)

-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Bahil Lahadalia는 경유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 50%가 혼합된 바이오디젤

13) <https://ekonomi.bisins.com/read/20251010/451919250/menteri-pu-ban-kegiatan-proyek-infrastruktur-prioritas-di-2026-apa-saja>

14) <https://ekonomi.bisins.com/read/20251017/451921122/satu-tahun-prabowo-gibran-minim-proyek-infrastruktur-baru>

15) <https://rri.co.id/en/International/190837/indonesia-aims-to-become-asean-s-future-energy-hub-deputy-minister>

16)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indonesia-course-b60-biodiesel-2026-lesser-gasol-imports-minister-says-2025-10-08/>

(B50)을 ‘26년부터 의무화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밝힘.

- 인니는 현재 40% 혼합 비율의 바이오디젤(B40)을 시행중이며, 수입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혼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 Bahil 장관은 지난 9월 정부가 B50 전환에 앞서 혼합 비율을 45%로 상향할 수 있다고 밝힘. B50 도입 시 연간 약 2,010만kl의 팜유 기반 바이오연료가 필요해 기존 B40(1,560만kl) 대비 약 30% 증가함
- Bahil 장관은 B50 혼합 연료에 대한 실험실 검증을 8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도로주행 테스트를 준비중이라고 설명. 또한 인니의 팜유 기반 에너지 사용 확대 계획은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의 수출 물량 감소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국제 식물성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점 프로젝트 동향

① 자카르타 데이터센터

< 사업 개요 >

- (사 업 주) SM플러스 (시나르마스 그룹계열사) – 한투그룹 조성·운용 펀드
- (참여기업) LG CNS (현지법인 통해 장비공급·설치, 운영, 직접사용 및 재판매)
- (사 업 비) 2.9억불
- (사업내용) 자카르타 시내 수전 30MW, IT Load 18MW 데이터센터 건설, 운영, 매각
- (추진현황) LG CNS MEP(장비설치) 계약, 현지업체(Acset)와 시공계약 체결완료, 본사 투자의결('25.9.4) 및 이사회회의결('25.9.15) 완료
- (25년 센터목표) 본사 투자의결 (달성)

○ (주요동향) 선행조건 달성 추진 및 KIND 투자금 납입 준비

② BSD 신도시 주거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시나르마스 랜드 (Sinarmas Land, SML)
- (참여기업) 대우건설, 대한주택협회 회원사 JV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46.6ha에 한국테마 적용 주거단지 (빌라 및 아파트) 건설, 분양
- (추진현황) 대우건설-SML MOU 체결('24.9.2), 1차(~'25.8) 및 2차 연장(~'26.2.15) - Termsheet 체결('25.10월말) - KIND FS 지원대상 선정, 최종FS 진행중
- (25년 센터목표) DD 및 최종 FS 수행, '26.1Q 투자심의 부의 준비

○ (주요동향) KIND 자금지원FS 협약체결 추진, 용역 착수준비

③ 수방 전기차 특화 산업단지

< 사업 개요 >

- (협 력 사) 현지 디벨로퍼/토지주
- (참여기업) GS건설 및 중국계 기업 참여 검토중
- (사 업 비) 미정
- (사업내용) 수방 지역내 산업단지를 단계별 조성, 분양 통해 Exit
- (추진현황) '25.2 전반적 협력 MOU 체결, '25.5~7월 NDA 체결 및 수방산단 사업 Pre-FS 수행 / GS건설 내부 사전사업심의 통과('25.10.1)
- (25년 센터목표) Deal Pipeline 등재 / 사전검토위 또는 사업선정위 통과, 개발참여

○ (주요동향) GS건설 내부 사전사업심의 통과, DD 예산 확보 完

④ 자카르타 MRT 4호선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자카르타 주정부(DKI Jakarta)
- (참 여 사) KIND, 국가철도공단, 삼성물산 + 플레너리 아시아(MOU 체결후 협의중)
- (사 업 비) 15억불 ('22년 Pre-F/S 기준)
- (사업내용) 자카르타 MRT 4호선 건설, 유지보수 ⇒ AP로 회수 (운영 분리예정)
- (추진현황) K-컨소 LOI 제출('23.2), LTP(AP 제외) 수령('24.1.26), 수정 LTP(AP 포함) 수령('25.2.19) - 기한연장 요청('25.7.8) - 플레너리 참여의향 표명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完) / 플레너리 참여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플레너리, 컨소 참여 및 FS비용부담 의향 표명 (10.24)

⑤ 신수도 공무원주택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 (참여기업) 삼성물산, 브란타스(신수도 공무원주택 도급공사 실적보유 건설공기업)
- (사 업 비) 약 4억불
- (사업내용) 신수도내 공무원주택(아파트 21개동) 건설, AP로 회수
- (추진현황) '24.10 삼성물산-브란타스 MOU 체결, '24.11 LOI 제출, '25.5.22 LTP 수령, '25.9 삼성물산 기용 컨설턴트 OIKN 질의 대응중
- (25년 센터목표) LTP 기한연장 획득 / 사업주 구성 확정 및 FS업데이트

○ (주요동향) 삼성물산 기용 현지컨설턴트 면담 (10.24)

- FS 대응현황 청취, 신수도청의 스탠스 및 사업일정 파악

□ 기타 프로젝트 동향 및 센터 운영 현황 보고

① 기타 프로젝트 동향

① 수도이전 / 신수도(누산타라) 건립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신수도청(OIKN, Otorita Ibu Kota Nusantara)
- (참여기업) 현지 국영건설사 재정사업 참여중 / PPP사업 외국기업 참여 추진중
- (사 업 비) 466조 Rp (원화 약 40조원)
- (사업내용) 수도 자카르타의 대기 및 수질 오염, 난개발, 교통체증, 기반침하 등의 문제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칼리만탄섬 동부지역의 발릭파판과 사마린다 사이에 도시를 신설하여 수도를 이전하는 사업
- (추진현황) 재정사업 위주 1단계(2022~2024) 마무리중, 2단계 사업 '25.8월중 입찰공고 예정

○ (주요동향) 신수도 건립은 부정적 여론·평가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장기·대형사업으로, 사업기획 지속 모색 필요

- 신수도 관련 현지 언론보도 종합

- 파키스탄, 신수도 교육·주택 개발 관심¹⁷⁾(Cnbc, 10/18)

· 신수도청(OIKN) 청장 Basuki Hadimuljono는 주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대사 Zahid Hafeez Chaundri가 신수도 개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키스탄이 국제학교 건립과 주택분야 투자에 관심을 보였으며, 인니의 수도 이전이 수십 년 전 파키스탄의 수도가 Karachi에서 Islamabad로 이전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

· Basuki 청장은 현재까지 총 50개 기관이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여러 투자자가 LOI를 통해 추가적인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 또한 신수도에서 국가기관 청사와 관사 개발이 추진중이라고 덧붙임

- 국가연구혁신청, 신수도 수자원 부족에 따른 개발차질 경고¹⁸⁾(Cnbc, 10/18)

· 국가연구혁신청(BRIN) 기후·대기연구센터 연구원 Laras Toersilowati는

17)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1012103005-4-675041/pakistan-minat-investasi-di-ikn-ini-yang-akan-dibangun>

18) <https://www.cnbcindonesia.com/news/20251018012708-4-676975/brin-kasih-peringatan-pembangunan-ikn-bisa-terancam-ini-penyebabnya>

신수도(IKN)의 수자원이 제한적이어서 개발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 신수도와 인근 지역의 수자원 분포는 식생수 20.41%, 비수역 79.08%이나 수역 0.51%로 불과하다고 밝힘

- 또한 신수도 수자원 확보가 조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위기에 직면할 수 있으며, 해당 연구 결과는 인공지능망(ANN) 기반 위성데이터 분석으로 97.7%의 정확도로 신수도 개발계획 기초자료 및 정부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힘

② Batam Hang Nadim Airport Expansion

< 사업 개요 >

- (발 주 처) Batam 경제자유구역청(BIFZA)
- (참여기업)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
- (사 업 비) 5,948억원
- (사업내용) 기존 T1 리뉴얼, T2 신설, 공항운영 및 지원시설 재배치
- (추진현황) Batam공항 운영권 인수 및 운영 개시('22.7~'47.6)

- (주요동향) 상업시설(14개 사업권, 32개 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입찰 완료('24.1). T1 리노베이션 공사 완료 및 운영개시('24.4)
- T2 신설 재원조달 상황 점검하여 KIND 참여가능성 타진 예정

② 협력센터 운영 보고

- 주요기업, 기관 면담 (10월 3주 ~ 10월 4주)
 - 네트워킹 3건 : BNG컨설팅, 수출입은행, 신한증권
 - 사업개발 12건 : IFC 인도네시아, STX, 삼성물산·철도공단, 시나르마스랜드, PT IMS, LG CNS·한투증권, LX인터, PT BPI, 철도공단, 쿼텀벤처스PE, 시나르마스랜드, Insivia컨설팅
 - 대관업무 4건 ; 바페나스·EIPP자문관, 국토관·과기관·공기업, 국토관, 바페나스